

# ‘12.07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포럼 개최결과

문화여가정책과

## □ 포럼 개요

- 일 시 : 7. 26(목), 11:30 ~ 13:30 (2시간)
- 장 소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지하 1층 제 1~2회의실
- 참 석 : 문화부 직원 및 문화예술관계자 등 50여 명
- 주 제 : “불안한 미래의 예술창작자, 자립에서 길을 찾다.”
- 초청강사

### - 이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게임문화재단 이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문화사회연구소 이사 겸 임
- \* 게임의 문화 코드(이매진, 2010), 전통문화예술의 미래(채륜, 2010), 문화자본의 시대(문화과학사, 2010), 대안문화의 형성(문화과학사, 2010) 외 저서 다수
-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박사

### - 박 진 호 (프리랜서 유니온, ‘Social Creative’ 대표)

- \* 2011. 8. 15 Social Creative 설립 현 대표

## □ 주요 결과

<이 동 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인디 중의 인디 : 자립음악생산조합 소개

- 보통 인디(Indie, INDI)음악을 하나로 생각하나 그 안에 많은 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디음악 중에서 인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흐름으로 등장한 자립음악생산조합소개하고 합니다.
- 오늘의 주로 화두인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가 아니라 불쌍하더라도 도와주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성격

- 문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Union)과 다른데, 코퍼레이션(Corporation)의 약자인 콤이라고 하는 먹거리 세계를 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연합이란 뜻으로 노동조합이 아니라 문화부와 같은 굉장히 자율적인 그룹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 문화적 자율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 이 말은 원래 일본의 문화비평가 가라타니 고진(柄谷善男, Karatani Kojin, 1941~ )이 지역학회제도를 사용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는 물문의 교환의 지원을 학회를 통해서 하고 조합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장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부족한 것을 사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 운동으로 통장의 잔액이 항상 0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수익과 지출이 똑같아 지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운동을 보통 남(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이라 하며, 이것의 이론적 언어가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연합이란 의미이며 이 개념은 자유로운 상상력 열정을 발산하는 문화 예술 영역에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하므로 문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생산자 조합이 아니고 생산조합이 공식명칭입니다. 그 이유는 생산자들만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물론 비중이 많지만) 생산과 소비가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악을 즐기는 소비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인디라는 오래된 말이 아닌 자립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립음악인가 살펴보니, 이들의 선언문에는 분명히 인디에서 자립이라는 언어 상의 명백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그 말, 그 뼈대가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언어의 변화에는 내용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언문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들의 선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음악가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졌다. 유령의 차림으로 범람하는 《인디》 속에서 정작 음악가들의 삶은 초라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어야만 한다. “오, 음악가들이여, 그대 아직 살아 있는가?” 우리 음악가들은 오늘 이곳에서 《자립》을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인 《인디》에 종속되지 않으려 한다.*

## **인디라는 말의 거부 : 그 시대적 배경과 계기 찾아가기.**

- 인디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디라는 말은 주류 대중음악산업으로부터 종속되지 않으려 썼던 말인데 자립음악가들은 왜 인디음악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할까요? 왜 종속되지 않으려 할까요?

○ 이를 위해 홍대인디음악의 변화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홍대 인디 음악 씬은 초기의 독립정신을 이미 잃었다, 이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002년 한일월드컵은 국가적인 행사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여가를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상암에 가까운 홍대가 젊은이들의 문화가 넘치므로 여기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대거유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

- 당시 문화관광부가 홍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함,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문화구 지정이 홍대 인디문화를 더 열악케 함

- 이유는 홍대땅값이 2배 반이상 뛰었음, 잘 운영하던 극단, 클럽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불가하게 됨

-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 당시 홍대 인디 음악씬을 지배한 세력은 인디밴드의 클럽이었는데, 이들은 대중들이 좋아하기 어려움, 따라서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매개로 한 댄스 클럽을 많이 육성함, 홍대 댄스클럽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02년을 계기로 수많은 댄스클럽 등장

- 양현석이라는 매이저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힙합음악으로 홍대에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힙합, 레이브를 출 수 있는 대형 클럽 할렘을 만듦, 홍대에 대형자본이 들어오게 된 계기

- 홍대는 라이브 클럽이 댄스클럽으로 바뀌게 됨, 강남의 부비부비 클럽이 홍대에 등장하게 된 것임

- 닭벼슬하고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메탈자켓입고 쇠를 징징감았

던 친구들은 사라져 버리고 멋있고 아름다움 레이블 클럽버들 아름다운 여성들이 등장, 이를 계기로 홍대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며 클럽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됨

- 차라리 문화지구 선정을 안 했으면 자생적으로 발전했을텐데 그걸로 인해 홍대의 균열이 생기게 된 셈

## (2) 아이돌의 등장

- 아이돌음악의 2세대 시작을 동방신기의 데뷔로 봄, 아이돌 춘추전국시대, 아이돌 전성기의 도래라고 할 수 있음, 그 전엔 페스티벌, 대학 축제에서 인디밴드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등의 현재 최고의 인기를 고가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2005-2007년 사이에 걸쳐 대거 등장하게 됨

- 한국의 대중음악 씬의 종다양성이 부족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었던 것마저 더 나빠지게 됨

- 모든 대중음악 씬은 아이돌로 깔아버리게 되면서 인디음악씬이 직접 영향은 없었으나 침체를 맞게 됨

- 2005년 전만하더라도 대학가 축제는 노브레인, 크라잉넛의 밴드들이 굉장히 많은 초대를 받았음, 당시 홍대 인디 밴드들은 1년 내내 쫄쫄 굶다가 대학가 축제 때 5월과 9월-10월 사이에 돈을 벌어서 1년을 버티는 식임, 클럽에서 받는 돈은 얼마 안 됨

- 대학 축제에도 아이돌 그룹들이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는 서울 유명 유수의 대학에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출연하게 됨, 이른바 인디 그룹의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무너지고 인디음악이 다양성 음악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게 됨

### (3) 홍대의 메이저화

- 그러다가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이른바 88(88만원)세대의 애환을 담았던 이 그룹이 2009년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홍대인디음악 씬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그러면서 주류 매니지먼트사들도 홍대 음악에 들어오고 홍대의 유명 뮤지션 발굴하고 이른 바 홍대의 국민요정이니 홍대의 무슨 밴드니 이런 말이 회자되면서 홍대에 발을 들이기 시작

- 이것이 봄을 일다가 어느 순간 홍대 밴드들이 하나 둘씩 주류 매니지먼트사로 가게 되면서 홍대에 있었던 많은 밴드들이 대부분 홍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 레이블 사에 속해 있다가 하나 둘 메이저로 진출하게 된 것임, 홍대의 정체성이 급격히 위협을 받게 됨

- 또다른 것으로는 유명 방송사에서 하는 탐밴드라든가, 헬로 루키라든가 하는 방송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거 홍대 유명 뮤지션들, 팔려 나오지 않아도 될 나름대로 유명한 밴드들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서 홍대의 봄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됨

- 대체 홍대의 인디음악은 뭐냐, 밴드들이 다 방송 나와야 하느냐 라는 논의가 벌어짐

- 작년의 인디에서 가장 주목받던 국카스텐이 지금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인 예당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다, 나는 가수다에서 혜성같이 등장하여 윤도현을 대체하는 국민적 밴드로 등장할 함

- 국카스텐은 과거에는 개런티가 1-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을 고가하는 이런 방식, 이런 식의 자립음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홍대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논리를 펴게 됨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설립 계기 : 두리반의 철거와 뉴타운 컬처파티

- 홍대의 두리반 칼국수집이 그 건물이 개발로 철거되면서 돈 없는 인디밴드들이 두리반에 와서 칼국수를 맛있게 배부르게 많이들 먹었는데 이 철거로부터 두리반을 지키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인디음악뮤지션들과 작가들이 매번 음악회를 열고 시낭송회도 열고 이러면서 대규모 개발에 반대하는 음악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 그 때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하였으나 다 떨어져 나가고 철거 직전까지의 최후의 생존자들인 음악인들이 정작 두리반 칼국수집이 건물이 철거되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서 <뉴타운컬처파티 51>이라는 것을 열게 된다. 뉴타운은 알다시피 MB정부 때 서울 도시 개발의 대표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이들이 자립음악이라는 말을 시작하게 됨, 오프 더 브로드웨이(off the Broadway)처럼 오프 더 (off the) 홍대라는 홍대를 떠나는 움직임입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주변인 6호선 돌곶이 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들은 역에서 공연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돌곶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 이를테면 대공분실이라는 한예종 동아리가 있는데, 한예종 건물이 안기부 건물로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름이 나오게 하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문화네트워크 공동체 모임이라는 클럽에서 공연도 함께 하고 한예종 학생들과 작업도 같이 합니다.
- 이렇게 홍대를 떠나서 모임을 갖는다, 물론 홍대에서도 모임을 갖음, 그리고 또 영등포의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돌곳이를 품고 돌곳이 사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들은 왜 돌곳이로 갔을까요? 이 곳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릉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 생태계적 측면에서 가장 근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기를 거부한다라는 이들의 선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인데요, 홍대 안에서도 레이블 사와 밴드 간에 착취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악 생산들간의 연대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돌곳이로 온 것입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슬로건.**

- 이 과정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은 구체적인 3가지의 슬로건을 설정합니다. (1)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2) 분열이 아닌 연대로 (3)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가 그것입니다.
- 위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권으로서의 음악권'입니다.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음악적 역량이 크든 탁월하든 아니든, 아이돌 그룹처럼 국제적인 유명세를 받든, 돌곳이 주민들만 알아주든, 평창동 주민들만 알아주든, 음악을 하는 것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 음악가들의 노동권이 그 두 번째입니다. 보통은 음악가들에 관해서 저작권을 많이 얘기하나 음악가들도 일종의 노동자로서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 카라가 작년 일본 최고의 인기 걸그룹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아이돌 그룹 중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동방신기, 빅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요, 카라가 작년 일본 매출액이 65억엔이었는데 이는 한화로 800-900억원입니다.
- 이러한 매출에 비해 카라, 즉, DS측으로 넘어 온 것은 8% 정도입니다. 10%도 안 되는, 80억, 90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카라 각 멤버들에게 돌아간 액수는 예상컨대 많아야 1인당 2억일 것입니다
- 그렇게 많이 고생해도, 자기로 인해 800억 매출이 올라가도, 아이돌조차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일전에 카라 중 구하라(아마, 강지영, 한승연, 니콜을 말하는 듯) 같은 친구들이 문제제기 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 번 돈은 많은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돈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홍대도 인디밴드들이 공연을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공연에 1-2만원밖에 못 받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 세 번째는 조합원들의 생활권입니다. 생활을 해야지만 음악을 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인디밴드들의 많은 수가 낮에는 밥집에서 밥 나르고 밤에는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펑크밴드는 닭벼슬 머리를 해야 하므로 받아 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 제가 아는 홍대에서 활동하는 가야금 하는 '정민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홍대의 유일한 국악 가야금 연주자이나 생계가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생계를 위해 지하철 역에서 주먹밥을 팔다가 쫓딱 망했다고 합니다. 2000개를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서 400만원 투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부모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홍대 뮤지션들 살아남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구성원 소개 및 활동

- 현재 지금 자립음악생산조합에는 100여 명이 조합원이 있고 30여 개의 밴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기동 단편선, 밤섬해적단, 무키무키 만만스, 하헌진 등의 이름이 낯설고 신기한 밴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들은 한예종 소속 클럽 대공분실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20여 차례의 공연을 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는 총 8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 이들은 음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홍대 미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당했을 때 지지하는 음악회를 열기도 하였으며, 명동의 카페 마리 철거 반대운동, 한진 중공업이라든지 또 이런 식의 사회운동에도 결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음악가들의 기본 소득 운동이나 예술인들의 복지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문화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결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회기동단편선은 이 조합의 대표적인 뮤지션 중 1명으로 사실상 리더격에 해당하는데 본명은 박종윤으로, 포크 음악을 주로 합니다. 2012년 정규앨범 '백년'을 발매하였으며, 기본적인 네트워크 운동이나 다양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회기동단편선의 음악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을 것입니다. 머리에 다 뭘 칭칭 감고 있으며 음악은 어둡습니다. 그래도 꽃히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 유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밤섬해적단의 밴드명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밤섬은 여의도 밤섬을 뜻하는데 음악을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를 폭파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자기들은 밤섬에서 숨어 지내다가 언젠가 여의도 증권가를 한 번 흔들어 보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 밴드치고는 독특하게도 드럼하고 베이스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유명해진 것은 김정일 만세인데, 이 노래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국정원에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을 찬양 운동했다는 이유였으나 알고 보니 '김정일'이 이 밴드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패러디가 있었으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 이 밴드 노래의 가사는 매우 직설적이고 과격합니다. 저속적인 언어 구사도 많은데 이는 펑크밴드여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키무키만만수의 멤버 둘은 한예종 학생들입니다. 한 친구는 음악원, 다른 한 친구는 미술원에서 활동합니다. 둘이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하겠다 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학생들 동아리가 모여 역 앞에서 공연을 하겠다 했는데, 덜컥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여 결성된 것입니다.
- 한 친구는 기타는 대충 칩니다. 다른 구성원인 만수 씨가 장구를 배워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면 치겠거니 했는데 못 치는 것입니다. 포크에 장구라는 컨셉은 좋았는데 연주 실력이 안 되니까 장구를 공연할 때 옆고, 심벌즈 하나를 같이 놓고 이것은 장구가 아니라 구장구장이라고 억지

로 이름을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 비트볼이라는 음반사에서 음반을 냈습니다. 음악은 뽀뽀밴드 같은 스타일이나 훨씬 더 음악적인 화성 체계가 없습니다.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우며, 비명과 괴성만 지릅니다.
- 안드로메다라는 노래 혹은 김창완 노래를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거야" 패러디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 친구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이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스러움, 자유스러운 생태계에 목말라 있다가 이런 아마추어 밴드들이 갖고 있는 뽀뽀한 퍼포먼스가 현장에서 어필되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 이런 식의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음악들은 단순하게 자립적인 음악을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스타일도 굉장히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음악의 원초성의 느낌을 담고 있으며 자유로운 상상력, 발랄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은 일반 뮤지션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앞으로의 과제 : 조합원의 확대**

- 더 많은 밴드의 영입이 필요합니다. 홍대의 인디 음악 생태계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첫 번째가 너무 유명해져서 인디밴드로 불리기 거부되는 밴드가 있다, 자우림, 텔리스페이스, 크라잉넛, 노브레인, 언니네이발관, 최근의 국카스텐 이런 밴드들입니다. 이런 밴드들은 본인들에게 인디라는 말을 붙이는 걸 꺼려합니다. 음악적인 스타일은 매우 인디스러우며 이 밴드들이 가장 유명한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밑의 밴드들이 30~40여 팀이 됩니다. 앨범 1-2장과 어느 정

도 유명세를 갖고 있으나 홍대의 인디음악 정체성을 나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너마저, 검정치마, 10cm(약간 팝적인 음악이긴 하지만), 몽구스, 서울전자음악단, 오 브라더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등의 이름을 알만한 밴드들이다

- 세 번째 부류가 홍대인디밴드 중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부류인데, 200팀 정도 됩니다. 홍대 클럽에서 1-2번 정도 공연한 경험이 있고, 가장 양적으로 많습니다. 한 두 장의 인기앨범을 만든 밴드로 탑밴드 일부 출연한 밴드도 있습니다.
- 네 번째 자립음악 생산조합, 인디 중의 인디라고 할 수 있다.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들과의 연대를 열어놓고 있지만 음악소비자가 별로 가입되지 못한 게 사실이며, 더 많은 소비자 가입 필요합니다.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음악적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립연대와의 운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안**

-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화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자립음악생산조합은 국가의 정책에 특별히 의존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좋아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3가지 대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 **(1) 사회적 기금의 가능성(social funding)**

- 이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1-2만원씩 투자를 하고 이들을 모아서 인디 음악에 투자를 하고 그 나온 결과물인 음반, 공연 등의 것을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

- 소비자들은 돈을 투자하고 음악, 공연으로 돌려 받는 식의 체계로 규모는 1년에 1인 1만원씩 10,000명-20,000명 정도만 모으면 자립 가능하게 되는 금액임

## (2) 문화생활협동조합과의 네트워크

- 현 실존하는 실체는 아니나 문화연대에서 문화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택 생협, 의료 생협, 먹거리 생협, 대학가 생협처럼 문화영역에서도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개발하고 있는 것임

- 7월이면 협동조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여건이며, 정책 개발, 네트워크 라는 차원에서 문화생활협동조합개발 중, 자립생산운동조합 혹은 소셜 크리에이티브 들과 연계 필요

## (3) 공공다양성 (public diversity)

- 보통 공공성이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긴 했으나 보통은 공적 재원을 많이 지칭, 자립음악생산조합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공적인 자원인 음악적 자원이 어떤 문화적 다양성으로 발전하는가가 중요

- 공공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음반 녹음을 할 수 있는 창작 스튜디오를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거나, 공연장 예를 들면 독립영화전용관처럼 독립음악인들을 위한 공연장을 정부가 많이 짓는다거나, 이들을 위한 전용공연장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해 주거나 하면 자립음악생산조합도 공공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셜 크리에이티브 창립 계기 : 프리랜서는 혼자서 할 일이 많다.

- 소셜 크리에이티브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제안하는 것이며, 디자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될 것이 많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거친 세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프리랜싱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업자 등록인데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처리도 안 되고 애매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흥대 밴드에 있던 적이 있었고 힘들어서 지금은 밴드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창작자들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즉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 날인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알바도 되게 많은데 그냥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영수증 발급해야 하고 장부 정리도 해야 하고, 부가세 납부해야 하고,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해야 하고……머리에 쥐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나면 사실 원래 자기가 원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일 거리를 처리하면서 프리랜서를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주기적인 일 거리가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연구도 해야 하고 사람들 찾

아다니면서 일거리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서 트렌드는 계속 바뀌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작 자기가 하려고 했던 디자인이나 창작 작업은 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 저희도 프리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의를 시작을 하면 1차 때 부터 계속해서 수정요청이 나옵니다. 이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나온 다음에 계속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대부분은 얘기를 하다가 스타일 이런 것 상관없이 급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 프리랜서는 개인이니까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vs 단체, 조직과 대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오롯이 혼자서 홀로서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의 사례 : Loftwork, Freelancer Union**

-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외국의 사례를 찾아 봤습니다. 일본의 Loftwork라는 조합은 아니라 온라인 상에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 120,000명이 올린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 회사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회사로 외부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면 매니저들이 사이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적절하게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프리랜서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동시에 프리랜서들 사실 혼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벤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 시작하고 나서 프리랜서 유니온을 또 참조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프리랜서 유니온이고 사라 호로위츠(Sarah Horowitz)가 1995년에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 당시의 프리랜서들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고용된 형태도 아니어서 그 애매한 위치 때문에 세금이 이중과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라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풀을 만든 것이며, 이전부터도 프리랜서들을 위한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 14508명이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의료수가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데, 사실 프리랜서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을 묶어서 보험회사와 같이 상품설계를 해서 프리랜서들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따로 설계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 프리랜서들은 사실 은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이는 창작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은퇴보험을 설계해 주어 조합원들이 은퇴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상품을 설계합니다.
- 일거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프로파일이 있어 요청이 들어오면 적절한 사람을 찾아 연결합니다. 자기가 진행한 프로젝트

트를 올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뷰를 프리랜서들이 사이트에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악덕이다, 훌륭하다, 일하기 좋았다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어 다른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찾기가 편함

- 실제로 우리도 스스로 프리랜서로서 디자인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 닥쳐야만 클라이언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과감한 시도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최근에 프리랜서 유니온에서 홈페이지 리뉴얼하면서 만든 것인데,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넣으면 마지막에 계약서를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얼마고, 계약자는 누구누구고, 어떤 일을 할 거고 등의 누구나 쉽게 계약서를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서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제일 많이 왔던 메일은 최근에 이제 아예 '법적으로 사전에 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예 일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조합원들은 사전에 입금이 되든 뭐든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운동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법안으로 입안자라는 의견이다.
- 저희가 생각했던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프리랜서들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 소셜 크리에이티브 설립과 8개월간의 여정

- 2011년 8월 15일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보다 창의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소셜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나름의 브랜딩을 함께 가졌습니다. 함께 할 때 창의적이고 우리의 창의력이 사회에 의해서 더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를 위한 창의력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지난 8개월 동안에 저희의 행보가 매번 모델을 계속 바꾸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agile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델을 계속 그리고 아예 통째로 모델을 바꾸는 작업을 4번 정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시도했습니다. 아예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고 계약서도 다 챙기고 저희가 중간에 바운스 해 주면서 조정해주는 역할만도 해 보고 분쟁 간 비즈니스 조정 역할도 해 보았습니다.
- 그러는 동안에 다 성공을 한 것은 아니고 3번정도는 안 좋게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할 때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쪽에서 시간을 끌어서 실제 시작은 한 달이 훨씬 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라고 해서 보니까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중간에 었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그런 과정 중에 분쟁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양쪽이 다 ok할 수 있게 5번 정도를 겪으면서 나중에 우리도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방법론이 될까, 그리고 저희 스스로의 노하우를 찾아내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개괄 도메인: action start, project start, idea start**

- 지금 중요한 것은 개괄 도메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action start를 가장 위에 먼저 걸었는데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모태가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도 그 중 하나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취업 프로젝트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모일 수 있는 분위기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 그 외에 것들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project start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해 가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식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서비스 정신을 구현하려 합니다.
- 사람들이 웹 사이트 제작시 "웹사이트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식으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사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색깔과 어떤 배치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정해지도록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나서 디자이너가 그 성격을 알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려 합니다.
- 그리고 아까 말한 지금의 문제, 영수증 처리, 세금 처리 이것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에 이를 베타서비스 수준으로 가오픈할 예정입니다.

- idea start 는 소셜펀딩사이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사라지므로 자기만의 창작작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셜펀딩 모델 자체는 10% 정도의 소득을 책정합니다. 500만원짜리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이것도 매우 큰 수준이지만) 거기에서 5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데, 한 달에 두 세개 정도입니다. 나올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0만원 가량이 되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은 적어도 3명 정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웬만해서 수익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하는 이유는 창작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업서치라는 소셜펀딩사이트가 있었으나 운영자가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펀딩 사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 편집 작품들은 수수료가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action start !**

-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action start에 대한 것입니다. action start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프리랜서 창작자들의 협동조합이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몇 가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서 지난 결과물들을 모아서 만든 패키지 형태의 풀킷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 봉투를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에게 줍니다. 파란 봉투는 클라이언트에게 노란봉투는 디자이너들에게 주는데, 기본적으로 봉투에는 계약서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 계약서에는 갑,을이라는 말을 빼고 회사와 창작자로는 말로 대체하였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던 말을 다 빼고 한글로 풀어서 썼으며, 2차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불평등한 내용을 평등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 클라이언트와 소통해 보면 디자인에 국한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말로 디자인에 관해 소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 심플하게 이런 말로는 알 수 없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핸드 포토 타이핑이라는 기법을 좋아합니다.
- 우리가 만든 것은 리플렛의 초안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려보고 적어보고 접지라든가 약도라든가 들어갔으면 하는 문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미팅 때 그리면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툴(tool), 스케치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그 다음은 우리가 만든 agile design communication guideline입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를 챙기거나 그 다음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들고 하는 것인데 충분히 작업을 해 본 사람은 자기만의 룰이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 놓았습니다.

- 그런 과정에서도 추상적인 개념을 뽑아 놓은 틀들, 프로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써 보면서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틀을 넣어 놓았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해야 디자이너와 얘기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클라이언트와 얘기할 수 있다 싶은 것들이 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 클라이언트와 창작자는 언어가 정말 다릅니다. 그것을 저희가 통역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action start 의 지향점과 진행 방향**

-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패키지들을 보내 드리게 되는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용적인 프로젝트인 디자인 액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1)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음 좋겠다라는 지향점**

- 환경, 제3세계, 문화예술, 농업을 위한 디자인액션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을 두고 재능기부프로젝트를 진행
- 재능기부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
- action start와 social creative의 결과물이 연계된 프로젝트 진행, 웹 상에서 10개의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을 모두 포스팅
- 10분 이상의 디자이너분들이 자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여 신청하면 기업에서 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정을 해

서 12팀 매칭, 이거는 조만간 마감이 되어 논의할 예정인데 몇 개 나왔던 것들을 사례로 넣어봄

- DI나 편집들을 중심으로 작업

## (2) 고향을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 이것은 다음 주말에 문경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임
- 혼자서 재배하며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주고, 김매기도 안 하는 이를 테면 쭈대밭을 너무 크지 않게 쳐 주는 역할 정도만 하며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음
- 그럼에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음, 이런 분들을 도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럼에도 디자인 무료로 할 수 없어서 견적을 뽑음
- 직접 방문해서 체험활동하고 브리핑하여 이를 가지고 디자인 작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페이는 등가적인 현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 호박과 토마토를 받기로 함

## (3) 티셔츠를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 서울 동아리였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일을 하는 모임의 액티브한 제안이 들어옴
- 그 쪽의 제안은 우리가 문화수익산업을 연결하면 티셔츠에 판매된 내용을 형식으로, 러닝개런티 형식으로 수익을 취하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음
- 계속해서 팔리면 디자이너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됨
-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의 추구

## (4) 견적 기준안 정하기

-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 중 하나, 창작

파트에는 다 해당, 원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애매함

- 견적을 보면 천차만별, 디자이너 스스로도 맞는 견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음, 내지는 인건비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많음

- 클라이언트들도 난 적절한 페이를 할 생각이 있는데 누구는 50만원, 누구는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사실 다른 분야는 협회에서 지정한 적정단가가 있으며 또한 정통부의 디자이너들은 중급, 상급이 나뉘어져 있고 급마다 얼마만큼의 페이가 정해져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그런 기준이 없음

- 따라서 속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가격을 깎음,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떨어지게 됨

- 무한정 떨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견적을 냈는지 우리끼리 협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각자의 견적 방식을 열고 다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것임

- 얼마가 적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범위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향방 과제 : 디자인 시장 발굴 및 커뮤니티와 지원의 확대**

- 디자인을 지원하지 않던 시장들이 기존에 많으므로, 디자인을 수요로 하는 시장들 개발 예정입니다. 디자인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던 시장이므로 이를 발굴 개발이 필요합니다.

- 2012년 8월 15일 1주년 협동조합 같이 하는 사람의 모임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제까지는 후원 등이 전혀 없었는데 1일 호프처럼 후원도 받고 싶습니다.
-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같이 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싶고, 프리랜서들에게 상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지급이행이 안 될 때의 절차 등도 상담해 주기를 원하며,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했는데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있었음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들과의 상담도 고려 중입니다.
- 디자인 분야의 학부 4학년 1학기가 되는 학생인데 창작자들을 만나도 현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상담해 왔습니다. 브레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실습 기회를 연습 제공해 주었습니다.
- 또한 희망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창작자들을 위한 모임을 다음 달에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참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 < 질의 · 응답 >

**Q : 자립생산조합 공식명칭은 작년에만 해도 명칭은 생산자 조합이었는데,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었다. 연구원 통계 상황을 보면 예술 창작자들 분의 수입 통계를 많이 냈는데 0원이 경우가 제일 많았다. 기준을 똑같이 월소득으로 두고 하는 조사자체가 불합리할 수도 있으며, 문화 예술 입장에서 잘 안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노동이라고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업종하고 표준화시켜 말하**

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조합에서 했던 활동 중에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하여 인디 밴드와 인디 뮤지션들이 음반을 낼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다. 조합형태로 해서 50만원 정도만 대출을 해 주며 이 액수가 충분히 첫 음반을 낼 수 있는 액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작아서 놀랐다. 이른 바 창작자들 조합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해 이동연 교수님의 전망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동연) 조합원들이 음반을 낼 경우 50만원의 제작지원비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지원을 받아서 음반이 나왔다고는 하나 얼마나 그 음반이 판매가 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음반을 내겠는가,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때에 따라서 5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음반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홈레코딩 수준으로 씨디로 찍거나 아예 씨디로 찍지 않고 음원으로 제작할 경우는 자기가 쓰는 녹음과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사용료가 별다르게 필요 없으므로 50만원 이내도 가능할 것이다.
- 50만원이 적정가인가에 대한 회계학적인 고민에서 책정된 금액은 아니다. 일종의 조합원들의 음악적 창작 활동을 위해서 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 차원에서 이 금액을 받아들여야 한다.
- 더 좋은 음반이 만들기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 누가 이 돈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서 생산자들이 스스로 내는 돈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비자가, 회비 형식이 되었듯, 선투자 형식이 되었듯 자신들이 먼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것이 개미구단처럼 모여져 그것이 돈으로 형성되어 여러 명이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 마련 가능해진다.

- 소비자들의 연회비, 일정한 금액 투자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콘서트 계에 굉장한 이슈를 뿌렸던 '좋은콘서트'라는 팀이 있다. 대표적인 공연 브랜드가 '시월에 눈 내리는 마을'인데 대체로 연대 대강당에서 10월 말쯤에 실제 눈을 인공으로 내리게 하는 콘서트로 예매하기 힘들 정도다. 미리 회원들에게서 10,000원씩 40만 명에게 선지원 받아 40억을 유치한다.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Q :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최근 독립음악제작자협회가 발표된 것으로 안다. 자립생산조합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인디 뮤지션도 상업화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중가요와 매우 소통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보다 큰 시스템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자립생산조합은 그것을 큰 시스템을 거부하고 소규모 시스템만을 지향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다.**

- (이동연) 독립음악제작자협회는 음원저작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음악저작권과 관련해서 주류쪽도 어려움이 있지만 인디 쪽도 거의 분배가 되지 않는다. 인디 음악이 의외로 영화나 드라마 OST에 많이 쓰인다. 또 나름 취향이 독특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음원다운로드가 꽤 된다.
-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 문제 때문에 정당한 분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이저같은 경우 그걸 늦게 받거나 조금 덜 받아도 살 수 있지만 독립음악제작자협회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받으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 이는 곧 음악인들, 밴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제작자들의 모임이며, 소규모 레이블 사들의 모임이다. 음반 레이블을 갖고 있거나

몇몇 인디 밴드 보유한 소속사들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상업적인 주류 시장에서 일정한 지분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 인디라고 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벌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당하게 음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주류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다 보면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 대충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고 주류로 나서기 위해서 멜로디를 예쁘게 만든다거나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다. 자립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돈을 벌고자 한다가 보다는(물론 그 욕망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 다음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 자립음악생산조합도 시스템에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주류 대중 음악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간이면 공간, 조직이면 조직, 자본이면 자본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분명하다.
- 인디가 자꾸 상업화되니까 거기에 기대지 말고 자기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립음악생산조합이며 이를 실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악 창작에 대한 공유가 더 넓어져야 하고 소비자 문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음악을 비공식적인 작업 형태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성공은 불가능하다.

**Q : 본인은 사회적기업 영화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회사를 만들고 있으며 제작 하고 있다. 자립이라는 말에 나도 관심이 많다. 그런데 자립이라는 말이 오늘 와서 들어 보니 작품 생산의 자립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이다. 작품 생산과 창작을 자립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이전에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위한 고민이 이 자리에 별로 없지 않은가 한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 같다).**

**액션스타트를 보면서 저런 고민들 속에서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들을 연계해 주었을 때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만약 이를 포기한다면 디자이너 선별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

**이동연 교수님께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자립음악생산조합에서 어떤식으로 결정되어 진행되는 건지, 협동조합형태로 넘어간다면 소비자 조합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자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소비자 조합이 생산논리와 관계지어 본다면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가 궁금하다.**

- (박진호) 먼저 자립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우선 자립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한다.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러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저희가 같이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패키지 이런 과정과 같이 과정 쪽에서 배워 갈 수 있게 훈련 중이다. 디자이너들의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라는 것만 없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을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사실 교육으로 이를 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거리를 통해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추후

로 세미나 혹은 케이스를 공유하는 모임 등의 대안도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해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가 아주 메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컨트롤을 말씀하셨는데, 웹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물론 CC로 라이선스가 공유되는 상태이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보내 드리고 맘에 드는 디자인을 직접 고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타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에이전시는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장이 에이전시가 이제까지 진행한 사업을 보여주고 계획안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며 돌아가서 디자이너에게 이런식으로 뽑아 내라고 명령하는 구조다.
-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올리게 할 때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작업하실 분만 올리세요라는 것이다. 또한, 올릴 때 어떤 부분을, 언제 작업했는지를 꼭 표기하게 한다.
- 사실 직접 컨트롤은 불가하다. 이걸 다 컨트롤하려면 매우 어렵다, 포탈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해 봤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 봤으나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 봤으나 다 관리되지는 않았다.
- (이동연) 자립음악생산조합이라는 단어에 생산조합이라는 말이 있어서 본 강연에서는 생산에서의 자립을 주된 경향으로 말했다. 여기 속해 있는 밴드가 직접 대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 입을 빌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자립은 생활 속에서의 자립이다.
- 그 중에 하나가 창작활동이고 창작활동이 중요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면 돈을 벌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다. 자기

가 하고 싶은 음악을 최소한의 생계로 하면 족하다인 것 같다. (너무 수동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생활 속에서의 자립에는 창작도 들어가고, 생계도 들어간다. 생계에 관련해서 예술인복지법에 나온 내용을 많이 눈여겨 보는 것 같다.
- 그리고 실업급여적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창작 상태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프랑스나 호주처럼 창작자에 대해서도 지급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나 호주의 20대의 창작자들은 특별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가지고 (대략 한국돈 100-120만) 작업을 하며 생활 가능하다.
- 그런 점에서는 70-80%정도만이라도 그런 식의 실업 급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힘들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오는 보험 적용 문제와 지원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다.
-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얘기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활동'이다. 이는 아티스트로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부분이 홍대 인디 씬과 자기들을 거리두기 하려는 이유이다.
- 문화부 공간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문화 기획과 같은 사회적 참여운동을 하게 되면 홍대 인디 밴드들을 많이 초청한하는데 이 때 반응이 3가지이다, 1)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무서워서 그냥 가는 사람 2) 즐겁게 하시는 사람 3) 민중 가수와 헛갈리게 하는 사람들
- 홍대 인디 밴드 섭외는 의외로 어렵다. 유명한 밴드 특히 그러하다. 노 개런티가 문제가 아니라 이슈가 되는 현장에 오지 않으려

하여, 쌍용자동차와 같은 이슈 관련 현장에 부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립음악생산조합의 밴드들은 생각이 다르다. 불러 주면 어디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와서 행동적인 활동(acitivism)을 하고 있다.

**Q : 박진호 소장님에게 질문하고 싶다. 중개 수수료만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 해도 수익 부분이 문제가 될텐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박진호) 소셜 펀딩 idea project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다. 사실 별어서 떼꾸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고 다른 project와 연계하여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만 활동하고 사무실도 없다. 기존 에이전시와 동일한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운영 불가능한 수익선이지만 그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 우리는 각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며 idea project 는 돈이 안 되도 할 예정이다.
- 그나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의 물건들이 플랫폼 안에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Q : 예술인 복지법이 발안되었고, 예술가 자살 혹은 생활고로 인한 사망 등의 의 현안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 두 분 강연자님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술가와 법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이동연) 오늘 사실은 예술인 복지법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보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이 원래 체계대로 안 간 것 같아서이다.
- 예술인 복지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원래 처음부터 반대했다. 오히려 노동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혹은 필요하다면 복지법에 적용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 예술인이라고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예술인보다 더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매우 많다. 예술가라고 특별 대우를 받을 필요도, 특별하게 낮게 대우 받을 필요도 없다.
- 기존에 있는 복지 관련법, 노동 관련법에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업 상태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아직까지 판례도 그렇고 그게 문제다.
- 고건준 씨라는 조소하는 사람이 사고사 하였는데, 삼성생명에서 철공을 만드는 사람의 사망으로 단순 산재 보험처리로 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특별한 차원의 대우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창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실업 상태에 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특별한 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그게 없어서 아쉽다.

### < 정리 >

- 예술인 복지법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굉장히 좁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노동의 가장 유연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입니

다.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 노동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또한 문화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모든 일들이 미래 사회의 노동이나 고용이라는 모든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끝//